

‘중도개혁’ 표방 김진표 어떤 색깔낼까?

‘좌클릭’ 속도 한나라와 정책차별화 고심 민주당 정체성 우선 당내 노선갈등 일촉

‘중도 개혁’을 표방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앞으로 설정할 정책적 좌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좌클릭’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본격화될 여야간 정책 경쟁에서 여권과 어떻게 차별성을 드러낼지 각 원내 대표의 최대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당 일각에서는 온건파인 김 원내대표의 중도개혁 노선으로 자칫 야당의 생명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김 원내대표의 고민거리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16일 KBS 등 일부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진정으로 위한 길이 무엇인지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중도 개혁 내지 중도진보 노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머쥔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당 일

각의 우려에도 ‘김진표’만의 색깔을 보여준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꼽고, 기존 ‘3+1’(무상교육·의료·보육+반값 등록금)에 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 확대와 주거·일자리·노인 복지를 추가해 정책적 완결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족 복지에 관심을 쓰는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는 ‘실천력’과 ‘신뢰성’으로 돌파한다는 생각이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자 감세법을 철폐하고 4대강 예산을 줄여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지원해 지방재정을 살리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약 6조원가량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동영·전정배 최고위원 등 진보적 색채를 강조하고 있는 비주류층 중심으로 야권연합 등을 위해 진보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 보여 노선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좌클릭이나 우클릭이라는 불필요하게 당의 분열을 유발, 당력을 분산시킬 뿐이 자 별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 대표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 “국기와 국기대상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나아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與, 이달말까지 全大관련 당헌·당규 개정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의용)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전당대회와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철환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에선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이 급하다”며 “오는 30일 비대위 회의 때(개정안)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와 관련된 당헌·당규로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전당원 투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대변인은 “최종 의결에 앞서 오는 22일까지 국회의원 및 원내 당협

위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23일 의원총회, 24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를 추구하고 안 되면 비대위 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한 당헌·당규 개정 및 공천제도개혁 소위(위원장 김학송), 정치선진화 및 국정쇄신 소위(위원장 원유철), 비전 및 당 정체성 소위(위원장 김성조) 등 3개 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소위에는 비대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참여가 가능하며, 각계 전문가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전대는 동원선거, 대의원 표심의 왜곡이 나타났고, 과거 실시했던 23만명 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행 방식과 전(全)당이 참여하는 방식의 중간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당협별로 20~30명의 대의원이 참여, 하루에 한 장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내 쇄신그룹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 확대, 전 대의원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범보수동맹 조짐...야권단일화 절실”

전남대 특강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고리로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 등 범보수동맹 구축 가능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선 야권단일 후보로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고 쇄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시되는 그는 이날 “2012년 대선과 민주당의 진로”라는 제목의 전남대 행정대학

원 특강에서 “한나라당 중심의 보수세력은 재벌과 언론, 종교, 지식 집단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넓고 강하고 보수대동맹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이 말했다.

그는 “야권통합이 최상책이지만 현실을 인정한다면 ‘소통합’ 또는 연합·연대를 통해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현대화를 위한 쇄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방향에 대해선 “지지층 결속을 위해 진보노선을 강화하는 확고한 원칙에 기반해 합리적 중도층을 포괄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담대한 거시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민 손에 쥐어줘야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정용화 “비대위서 호남 대책 논의”

한나라당 정용화 비상대책위원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호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선에서는 결국 1~2%포인트 격차의 승부가 벌어질 텐데 호남이 결국 키(key)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나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사람들 있으나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

해 “현재의 대북정책은 북의 조기붕괴론을 기조로 펼쳐지고 있으나 이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오로지 채택만 있는 정책보다는 채택과 당근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 여부와 관련, 정 위원은 “청와대의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했으나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우여-김진표 “통큰정치 하자”

첫 만남 여야 원내대표 경쟁속 협조 다짐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6일 상견례에서 덕담을 주고 받으며 “통큰 정치, ‘상생정치’를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신임 인사차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만남에서는 청찬과 덕담이 무성했으나 뼈 있는 농담 속에 신경전도 펼쳐졌다.

황 원내대표는 “오랜 국정경험이 있으신 분이 원내대표가 돼 국민이 좋아하고 한나라당도 기대가 크다”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오성과 한음을 예로 들며 “두 정당은 친구이면서도 (당파가 달라

국가에 일에는 무섭게 대립도 하기도 했지만 좋은 안을 만들어 조정을 지켰다”면서 “경쟁 속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황 원내대표가 ‘민심이 반영됐다’면 민주당의 의견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정치를 위해 꼭 필요한 자세”라고 화답했다.

이어 “전임 원내대표들은 지고도 이기는 정치, 통큰 정치를 했다”면서 “황 원내대표와는 인간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덕담 속에 ‘뼈 있는’ 말도 오고 갔다. 김 원내대표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음을 상기시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잘못된 점에 대해 좀더 강력하고 날카롭게 비판해 달라”는 원내위원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의 이름을 잘못 들으면 ‘우려’로 들릴 수 있다는 세간의 농담이 있다”며 “여야 모두 이런 오해 받지 않도록 잘 해나가자”고 덧붙였다.

그러자 황 원내대표는 “여당은 아무래도 그늘진 곳, 소수자의 목소리를 감싸려면 농치기 쉽다”면서 “앞으로 1년 안 남은 시기가 18대 국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받아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서 노무현 추모행사 다채

사진전·음악회... ‘노무현 등산로’ 명명식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 갖고 있는 광주에서도 18일 추모 사진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추모행사가 펼쳐진다.

16일 노무현 재단 광주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증심사지구 문민정사에서 ‘노무현 등산로’ 명명식도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7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올랐던 무등산 코스를 ‘노무현 등

산로’로 명명하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문성근 백만민관 대표,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김인주 무등산보훈단체협의회 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당시 의전비서실에서 작성했던 행사계획과 사진 등 각종 자료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강릉재연설 전문과 에피소드, 사진 등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해 이날 행사장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8일부터 29일까지 문민정사에서는 ‘꽃이 진 뒤에야 봄이 있을 줄...!’이라는 주제로 노 전 대통령 추모사진전이 열린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4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21일에는 문민정사 앞 잔디광장에서 ‘멀리보면 대의(大義)가 이긴다!’라는 추모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김일중, 노래하는 스님 법능, 윤진철 광주시립국악단장, 소프라노 유형민, 바리톤 김대수 등 광주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음악회 중간에는 자유발언 시간을 할애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매투자

- 공동투자 및 자본주 중심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유채권 등 특수물건만 투자
- 매수 일할 대리 일체사절
- 감정가 50%미만 물건만 취급

오천경매 연구소
H.011-605-5000 T. 062-525-5000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67-3번지
E-mail: csg5000@hanmail.net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동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의: 02)6908-7021, 7024 (민선우팀)

*참조: 공시지가 ₩1,130,000~ ₩1,320,000/㎡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공무원대출

공무원 대출

- ▶ 대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액: 500만원~8,000만원
- ▶ 금리: 연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이신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액: 500만원~5,000만원
- ▶ 금리: 연 9%~
- ▶ 대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는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만)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대구광역시 대표자: 백영학
계1금융권(이자율:최저년5.5%~13%(연체금리 18%~22%)) 계2금융권(이자율:최저년11.9%~33%(연체금리 22%~44%)) 계3금융권(이자율:최저년33%~44%(연체금리 44%))

법원 경매

법원경매 법률상담 ☎226-2785 h.p 010-5879-8300

경매주택임대차 상담, 권리신고 배당요구, 경매고충해결 소유권이전, 명도소송, 인도명령, 건물철거, 유채동산인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신청, 일반임대차

【추천 경매 물건】

소재지	면적	입찰시작기	입찰일
월곡동 하남금호타운9층	89㎡(27평)	7월7일	
금호동 라인아파트10층	125㎡(38평)	1월22일5회	05/24
공평동 주은모아16층	79㎡(24평)	1월1일	05/24
우산동 대원로제비마을4층	145㎡(43평)	1월6일1회	05/22
계림동 금호타운2층	161㎡(48평)	1월4일	06/09
수원지구 현진에비빌5층	143㎡(43평)	2월3일	05/20
광천동 e-편한세상4층	143㎡(43평)	2월4일5회	05/20
상무지구 금호쌍용7층	165㎡(50평)	1월8일9회	05/20
월산동 단독주택	대538㎡, 건246㎡	2월23일3회	06/10
쌍촌동 단독주택	대172㎡, 건198㎡	1월11일9회	06/16
사동 일률부지	412㎡(125평)	8월	06/16
상무지구 근린상가	552㎡(167평)	6월4일	06/09
화정동 상가주택	대209㎡, 건347㎡	2월2일	05/24
봉성동 4층상가건물	대440㎡, 건1011㎡	4월8일5회	05/22
담양군 금성면 전원주택지	임야4556㎡	1월11일5회	05/24
화순군 능주면 유리온실	대5551㎡, 건3577㎡	1월7일9회	06/09
동구 지산동(조대후문) 다가주택	대지231㎡, 건물321㎡	매매가3억1천	

이외 광주, 전남, 북에서 진행중인 모든경매물건 의뢰 가능합니다!

명도대행·명도소송·강제집행 NO.1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H.P 010-5879-8300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금서비스 • 개인신용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 (무담보/무보증/무조회)
- ◆ 대출금리 | 연 6% 정도 (천만원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 (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액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리)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I세-80%+a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60%) 금리: 연 3.93%~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